

1930년대 대만문단의 민간문학 수집, 정리와 그 의미

최말순*

【국문초록】

1930년대 식민지 대만문단에서는 민간문학에 대한 수집과 정리, 연구 열기가 활발히 일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지식인들은 대부분 1920년대부터 서구 근대성을 받아들여 대만문화의 발전과 식민지 상황의 개선을 추구했던 신홍 지식인 계층이었다. 이들은 민중의 오락으로 민간에서 구전되고 있던 노래, 설화, 속담, 수수께끼 등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류하고, 그 속에 담긴 민중의 일상생활, 대자연에 대한 정감과 역사의식을 추출하여 당시 식민지 처지의 민족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실적이 『대만민간문학집』(1936)의 간행이었다. 당시 민간문학은 민중의 생활과 염원의 담지체로서 뿐만 아니라 내용과 방향, 언어면에서 대만문학의 근대적 발전과 연관되어 전방위로 논의된 것으로 상세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문은 식민지 대만근대문단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직면했던 여러 조건과 문제에 착안하여 1930년대 대만문단에서 민간문학 채집과 정리의 열기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 과정과 결과, 그리고 당시 채집된 민간문학의 규모와 내용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주도했던 지식인들의 사고와 인식, 나아가 민간문학에 대한 관심이 식민지하 대만근대문학의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사고해 보고자 한다.

： ， ， ， 1930 ， ，
(1936)

* 國立政治大學 台灣文學研究所 教授

차례

1. ‘만들어진 민간문학’
 2. 1930년대 대만문단의 민간문학 논의
 3. 1930년대 대만문단의 민간문학 수집성과
 4. 일제시기 대만근대문단의 민간문학 수집과 정리의 의의
-

1. ‘만들어진’ 민간문학

민간과 문학의 합성어인 민간문학은 그 단어 자체에서 특정 향유층과 유통방식을 전제하고 있는데 곧 사대부와 같은 상층 지식인 개인의 문자화된 기록문학과는 달리 보통의 대중에 의해 집단적으로 창작되어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문학형태를 말한다. 민간문학의 유형으로는 가요, 민요 등의 운문형식과 신화, 전설, 설화, 고사 등의 산문형식, 그리고 속담, 속어, 수수께끼 등 관용표현이 있다. 이렇게 민간문학은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상층과 대비되는 민중의 삶, 언어유산, 통속적 정서를 포함하고 있어 흔히 선민의 지혜와 전통문화의 보고, 문인문학의 풍부한 재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그런데 민간문학은 비록 아주 오래전부터 각 지역 선민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장기간 전래되어 왔지만 그 존재와 개념은 주로 근대에 들어 문자로 기록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¹⁾ 즉 민간문학이 ‘시작된’ 시기와 ‘만들어진’ 시기 사이에는 큰 간격이 놓여 있는데 이는 민간문학의 개념이 근대의 산물로서 특정 의도와 목적에 의해 정립된

1) 전근대 역사서인 地方志는 지방의 지리, 역사, 인물, 자연생태와 산업정보 등을 주로 기재한 지방서로 施政에 필요한 경우 각 지방의 특성과 관련된 문학성이 있는 자료를 실는 경우도 있어서 한 지방에 대한 종합서 혹은 백과전서라고 불리는데 이는 方志學 연구자인 來新夏, 傅振倫, 王世慶 등의 공통된 견해이다.

일종의 담론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만의 경우 근대 식민지시기에 민간문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속, 풍속 조사와 채집이 진행되었는데 크게 다음 몇 갈래로 나누어 그 경위와 목적을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식민자인 일본당국에 의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1900년대부터 진행된 소위 대만구관조사(台灣舊慣調査)를 들 수 있다. 식민당국은 1901년에 임시대만관습조사회(臨時台灣慣習調査會)²⁾를 설립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80책(冊)의 『대만관습기사(台灣慣習記事)』를 출판했다.³⁾ 또한 1931년 대규모의 원주민 저항사건인 우서사건(霧社事件) 이후 타이베이 제국대학(台北帝國大學)에서 진행한 대만원주민 연구와 조사를 통해 토속 인종학연구실(土俗人種學研究室)에서 『남방토속(南方土俗)』⁴⁾을 발간했다. 그 외 대만총독부의 촉탁(囑託) 등 신분으로 대만에 온 일본인 언어학자와 민속학자 등에 의해 진행된 수집과 연구가 있는데 가령 히라사와 테이아키라(平澤丁東)의 『대만의 가요와 명저(台灣の歌謠と名著物語)』(1917), 가타오카 이와오(片岡巖)의 『대만풍속지(台灣風俗志)』, 『대만속담해설(台灣俚諺詳解)』(1921), 이노 카노리(伊能嘉矩)의 『대만지(台灣志)』, 『대만번정지(台灣蕃政志)』, 『대만문화지(台灣文化志)』(1928)등이다. 이들 관방에 의한 대만민간연구는 인구분포에 따른 실정을 조사하고 통치에 필요한 식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 최우선이었다. 또한 1940년대 전쟁 시기에 나온 『민속대만(民俗台灣)』잡지⁵⁾는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이라는 전쟁이데

2) 이 조사회는 1901년 10월 25일 『臨時台灣舊慣調査會規則』에 의해 성립된 관방조직으로 민정장관 後藤新平이 회장을 맡고 교토제국대학교수인 岡松參太郎과 織田萬이 주도하여 대규모의 구관조사를 진행했다.

3) 이 가운데 다수의 대만민간가요 등이 수록되었다. 대만의 구관조사에 대해서는 장릉즈, 『관습에서 '민속'으로: 일본의 근대 지식생산과 식민지 타이완의 문화정치』(최할순 편, 『타이완의 근대문학 1』, 서울:소명출판, 2013, 34-63면)을 참고.

4) 1931년부터 1942년까지 모두 6卷 24期가 발행되었고 이후 『南方民族』으로 개명되었다.

올로기의 구체적 실현으로 대동아민속학의 건립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대만의 민속과 풍속을 수집하고 정리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만인 지식인들에 의한 민간문학의 채집과 정리는 다시 전통 문인과 신지식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통문인으로 분류되는 조운석(趙雲石), 조검천(趙劍泉), 연횡(連橫), 정곤오(鄭坤五), 소영동(蕭永東), 나수혜(羅秀惠), 왕개운(王開運), 홍철도(洪鐵濤), 허병정(許丙丁) 등 주로 남부지역 문인들은 유희적 취미성이 강한 잡지 『삼육구소보(三六九小報)』(1930-1933)에서 민간가요를 채집하고 이를 모방하여 창작을 진행했는데 민간사회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생명력을 자신들의 문학을 위한 원천으로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민심을 이해하는 통로로 삼았다.⁶⁾ 신홍지식인에 의한, 즉 근대문단의 민간문학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 후반기부터 제기되어 1930년대에 와서 전국적인 규모의 채집과 정리는 물론 그 필요성과 효용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고 논쟁이 일기도 했다. 주요 무대는 『대만민보(台灣民報)』와 이를 계승한 『대만신민보(台灣新民報)』에서의 민가(民歌), 수수께끼 등의 수집과 토론, 잡지 『남음(南音)』의 민간가요 수집과 대만화문토론란(台灣話文討論欄), 『선발부대(先發部隊)』와 『제일선(第一線)』의 대만가요를 둘러싼 토론과 대만민간고사특집(台灣民間故事特輯), 그리고 『대만문예(台灣文藝)』, 『대만신문학(台灣新文學)』의 관련논의 등을 거쳐 1936년 『대만민간문학집(台灣民間文學集)』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좌우익을 망라하고 근대문학을 주도했던 중요 지식인들이 1930년대 주요 문예지를 무대로 하여 민간문학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5) 『民俗台灣』잡지에 대한 연구는 戴文鋒, 『日治晚期的民俗議題與台灣民俗學:以『民俗台灣』爲分析場域』(國立中正大學歷史研究所博士論文, 1999)참고.

6) 施懿琳, 『民歌采集史上的一頁補白』:蕭永東在『三六九小報』的民歌仿作及其價值, 『通俗文學與雅正文學』, 2002.7, 277-308면.

로 채집하고 정리하며 나아가 어떤 시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래로부터 구비 전승되어 민간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대만의 민간문학은 식민지 근대에 들어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 따라 일정한 목적과 의도로 채집되고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식민당국은 동화정책의 입안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식민초기부터 광범위한 구관조사(舊慣調査)를 진행했으며 그에 비해 대만의 근대지식인들은 동화정책의 시행이 초래한 민족고유의 전통문화 소실을 우려한 데서 민간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문은 상술한 식민지시기 대만에서 진행되었던 몇 차례의 민간문학 정리 중에서 1930년대 문단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문학 담당층인 신지식인들이 어떠한 인식으로 민간문학을 채집, 정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문학이 함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와 민족의 집단적 정서를 고려할 때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일종의 전통 만들기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성의 형성과정의 한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 특히 식민치하 정치주권이 박탈된 처지에서 민간문학을 통한 민족문화에 대한 증시는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집단정체성의 형성과 연관시켜 이해가능하다.

이미 수많은 연구가 나와 있듯이 동아시아의 근대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과의 접촉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고 특히 대만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우와 같이 후발 제국주의국가인 일본에 의해 반세기에 달하는 식민 지배를 당했다. 흔히 1920년대 초기를 대만근대문학의 기점으로 보는데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사적 분위기에서 부당한 식민차별정책에 대

7) 전통 만들기는 영국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과 테런스 레인저의 저서 『만들어진 전통(The Invention of Tradition)』(박지향, 장문석 역, 서울:휴머니스트, 2004, 40면)의 개념에서 착안한 것이다.

한 비판과 동시에 문화계몽을 통한 대만사회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신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근대문학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⁸⁾ 따라서 초기 대만근대문학의 주요내용은 식민치하 대만인의 곤궁한 삶과 식민경찰의 횡포를 법률과 제도, 보편적인 근대문명의 기준에서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식민지 처지에 대한 각성과 문화의 세기 도래에 힘입은 민족적 입장의 계몽주의가 대만근대문학의 이념적 지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근대성을 선취한 제국주의에 의해 차별적인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 보편적 근대성의 획득 주장과 동시에 특수한 민족적 처지를 비판하는 것에는 일순 모순되는 면이 없지 않다. 식민주의가 들여온 법률과 제도의 근대성은 종종 대만총독부를 위시하여 식민경찰로 관철되는 대만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수단이 되었고 평등과 자유 같은 보편적 근대가치도 차별정책과 임의적인 법 적용에 의해 실현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역사적 추세와 현실 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사유는 식민지 시기 내내 지속된 과제였다고 하겠다.

대만문단에서 1926년을 전후하여 민간문학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1930년대 들어 본격적인 민간문학의 정리열기가 일어난 배경에는 식민지 처지에서의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지식인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1927년 문화계몽운동의 총본산이며 근대문학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만문화협회(台灣文化協會)⁹⁾의 좌우분열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관점으로 대만현실을 사고하는 좌

8) 대만근대문학의 형성과 발전의 개략적 상황에 대해서는 최말순, 『대만문학 한 세기, 현대와 전통의 두 가지 지향성』, 『식민과 냉전하의 대만문학』(서울:글누림 출판사, 2019, 15-32면)참고.

9) 台灣文化協會는 1921년 신지식인 계층이 주도하여 대중에 대한 문화계몽과 민족자각을 일깨우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기관지인 『台灣民報』계열 잡지와 신문을 통해 근대문단이 형성되었다.

익운동단체가 성립되는 등 전반적으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중첩된 상황을 혁파하는 방향으로 계몽운동의 방향이 선회했다. 그러나 1929년과 1931년 두 차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좌익사회운동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웠고 그 대신 농민, 노동자의 생존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좌익문학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로써 초기 지식인에 의해 계몽의 대상이었던 무산대중은 민족과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설정되었고 따라서 이들의 인식과 정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생겨났으며 또한 좌익문학의 문예대중화 요구가 논의되면서 무산대중은 중요한 독자층으로 부상하였다.

그런데 무산대중에게 문예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시에 그들이 상용하는 언어로의 창작이 우선되었다. 당시의 낮은 식자율은 문예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익숙한 언어문제가 1930년대 대만문단의 주요초점으로 제기되었다. 중국에서 오사(五四)를 거치며 백화문이 공공교육 시스템을 통해 근대문학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과 달리 대만은 식민지 처지에서 근대로 이행한 관계로 언어의 근대화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또한 총독부가 강제한 전면적인 일어교육으로 인해 지식인들의 경우 문언(文言), 백화(白話), 복건성(福建省)과 광둥성(廣東省)의 방언인 민남어(閩南語)와 객가어(客家語)가 혼용되고 있었고 무산대중은 방언이 생활언어인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문학어를 모색하는 일환으로 무산대중의 언어를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는 민간문학의 채집, 정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문은 이러한 대만근대문단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직면했던 여러 조건과 문제에 착안하여 1930년대 대만문단에서 민간문학 채집과 정리의 열기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 과정과 결과, 그리고 당시 채집된 민간문학의 규모와 내용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주도했던 지식인들의 사고와 인식, 나아가 민간문학에 대한 관심이 식민지하 대만근대문학의 발전과정

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사고해 보고자 한다.

2. 1930년대 대만문단의 민간문학 논의

1920년대부터 형성된 대만근대문학은 근대와 식민주의에 대응하는 계몽적 민족주의의 자장 안에서 작동되었고 처음부터 문학의 대상은 광범위한 민중으로 설정되었다.¹⁰⁾ 근대문학의 주요 담당층이었던 지식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사적 기류의 영향으로 평화와 문화, 그리고 민중의 세기를 지향하면서 식민지배하에 놓인 낙후된 대만사회를 문화의 개조를 통해 개선하고자 했으며 근대문학은 그 주요수단이었다. 따라서 일반 민중의 현실생활과 그들의 고충에 대한 반응은 문학의 주요내용을 이루었고 초기부터 있었던 이러한 민중예의 관심은 1930년대 문단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민간문학 관련논의의 저변이 되었다.

그중 민간문학에 관심을 갖고 찾아 정리하지는 목소리가 근대문학을 주도한 문인들에게서 정식으로 나온 것은 1931년 새해 벽두였다. 『대만신민보(台灣新民報)』의 편집인이었던 성민(醒民, 본명은 黃周, 1899-1957)은 『‘가요’정리를 위한 한 가지 제안』¹¹⁾을 발표하고 어린 시절 대만가요를 듣고 노래하면서 자란 자신의 경험을 들어 현재 소실되고 있는 민간가요를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타이베이 거리에서 아동들이 어색한 발음으로 뜻도 모르는 일본 동요를 부르는 것을 보고 아동의 교육이나 취미생활 그 어느 면에서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민간가요가 더 적합

10) 대만근대문학의 계몽주의 문학관에 대해서는 崔末順, 『文學現代性的建立:1920년대台灣文學論的啓蒙內容及其結構』, 『海島與半島:日據臺韓文學比較』(台北:聯經出版社, 2013, 23-48면) 참고.

11) 『整理‘歌謠’的一個提議』, 『台灣新民報』第345期, 1931.1.1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런 노래들은 우선 대만말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내용도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이해하기 쉬워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외부환경으로 인해 이들 노래가 계승되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지금 수집과 정리에 착수하지 않으면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대만각지에서 독자들이 가요를 채집하여 보내오면 『대만신민보(台灣新民報)』 지면을 통해 정리를 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호소하고 채집한 가요를 투고할 때, 되도록 원음에 충실한 기재, 음만 있고 문자가 없을 경우 로마자 혹은 기타 부호로 음을 밝힐 것, 속된 표현이라도 원래의 뜻이 중요하므로 운색하거나 문언으로 바꾸지 말 것 등의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우선 민간가요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점차 민간고사, 전설 등으로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장래 분류와 정리,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으며 고유문화를 간직한 민간문학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장래 민족시를 탄생키는데 필요한 기초 작업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성민(醒民)이 제기한 민간가요의 정리 필요성은 1930년대 세계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민족과 집단 특수성에 대한 중시, 고유전통과 유산의 발견과 계승의 세계사적 조류와 무관하지 않은데¹²⁾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민간문학 수집과 연구열기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민(醒民)이 제기한 가요정리의 의의와 목적, 투고시의 주의사항이 기본적으로 1922년 베이징대학(北京大學)에서 나온 『가요(歌謠)』주간(週刊)의 발간사¹³⁾ 내용과 동일하다. 중국에서 민간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시기는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초반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1918년

12) 崔末順, 『現代性與台灣文學的發展(1920-1949)』, 國立政治大學中文系博士論文, 2004, 181면 참고.

13) 『歌謠』週刊第1號, 1922.12.17, 刊辭

채원배(蔡元培), 류반농(劉半農), 전현동(錢玄同) 등 베이징대학 교수들이 가요연구회(歌謠研究會)를 만들고 가요모집처(歌謠徵集處)를 설립하여 1922년 『가요(歌謠)』주간(週刊)을 발간하면서부터였다. 당시는 오사(五四)시기로 이러한 민족전통의 민간문학에 대한 관심이 얼핏 보아 신문학운동의 추진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소위 귀족문학의 독백체 문학체계와는 달리 민간에서 온 평민문학은 한편으로는 중화문명의 불가분의 요소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사회의 민주운동의 징표로 인식되었다. 베이징대학 총장 채원배(蔡元培, 1868-1940)는 전국의 지식인들에게 민간가요 수집을 호소하면서 이러한 행동이 장래 민족시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 나아가 가요 뿐 아니라 속어조사회(俗語調查會), 방언조사회(方言調查會) 등을 설립하는 등 전방위로 민간문학 조사와 수집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구어(口語)를 기초로 한 현대문학어의 제정, 봉건사상의 극복, 일반 민중의 창작을 중시한 오사시기 신문학운동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민간으로 가자’는 당시의 정치적, 문학적 구호였다.

이런 가운데 대만총독부 관원 히라사와 테이아키라(平澤丁東)과 타이난(台南)지방법원 통역관 가타오카 이와오(片岡巖)가 일본어로 정리한 『대만의 가요와 명저(台灣の歌謠と名著物語)』와 『대만풍속지(台灣風俗誌)』가 중국에서 번역, 소개되면서 베이징(北京)의 『가요(歌謠)』주간(週刊)과 광저우(廣州)의 『민간문예(民間文藝)』에 대만가요(台灣歌謠)와 민간의 재미있는 이야기(民間趣話)가 일부 실리기도 했는데¹⁴⁾ 이러한 중국의 민간문학 수집열은 대만 지식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28년부터 『대만민보(台灣民報)』의 중국가요열람(中國歌謠拾欄)

14) 王美惠, 「1930年代台灣新文學作家的民間文學理念與實踐:以『台灣民間文學集』爲考察中心」, 國立成功大學歷史研究所博士論文, 2008, 18-20면.

에는 섬서가요(陝西歌謠), 오나라 노래(吳歌), 광동지역 노래(粵謠), 소주가요(蘇州謠), 소흥민가(召興民歌) 등 여러 편이 실렸고¹⁵⁾ 1930년에는 각지의 학술계 신경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대만신민보(台灣新民報)』의 학예란(學藝欄)에 중국학자의 소개를 통한 서구 민간문학의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실린 『민중문예로서의 민요』¹⁶⁾는 주작인(周作人, 1885-1967)이 영국, 이태리 학자의 말을 인용해 정의한 민요의 개념을 소개하고 민요가 가진 ‘공동체의 감정을 자연스런 언어와 문자로 표현한 것이며 문학작품과 다른 점은 근대지식인이 아닌 노동자, 목동, 아동 등의 진실한 느낌과 생각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1918년부터 중국에서 가요를 포함한 동화(童話), 동요(童謠), 우언(寓言), 우스개(笑談), 이야기(故事), 지방전설(地方傳說) 등 민중문예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실제 채집을 통해 진행된 연구풍조는 대만의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¹⁷⁾ 이렇게 중국과 대만에서 제기된 민중문예와 민간문학에 대한 논의에서 민족문화의 보존과 기록, 그리고 장래 민족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공통성을 보이는데, 즉 민족학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와 문예상의 참고가치를 동시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채록과 민간문학의 내용이 가진 정감의 진실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성민(醒民)의 문장으로 돌아가서 정리해 보면, 가요를 포함한 민간문학을 정리할 이유로 소실되어 가는 전통문화의 보존, 민족시의 근원, 언어와

15) 『台灣民報』189號-320號, 1928.1.1.-1930.7.16.

16) 『作爲民衆文藝的民謠』, 『台灣新民報』第324號, 1930.8.2.

17) 대만의 가요수집 열기와 중국문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胡萬川, 『反思與認同:1920-30年代中國與台灣民間文學運動的異同』, 『中國近代文化的解構與重建學術研討會論文集－中華文化與台灣文化：延續與斷裂』(台北:政治大學, 2005.12), 17-36면.

내용에서의 친밀성 등을 들고 있는데 이를 1930년대 식민치하 일본이 주도한 근대화와 동화정책이 병행되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문화적 저항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내지연장주의를 기조로 한 근대교육이 증설된 공학교(公學校)와 각지에 설치한 국어전습소(國語傳習所)를 통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일본어 사용율이 높아졌으며 근대화로의 사회변천도 가속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민족어를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전통의 생활방식과 그로부터 배태된 진실한 정감과 선민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민간문학을 채집하고 정리하여 민족학적 연구와 근대문학의 원천으로 삼고자 한 것은 식민정책 하 교육과 문화변천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이 주장이 있는 후 『대만신민보(台灣新民報)』는 바로 다음호부터 가요란(歌謠欄)을 증설해 대만 각지에서 독자들이 채집해 보내 온 가요와 동요를 실었는데 반 년 만에 100여수를 모집했다. 또한 투고 시 주의사항에서 말한바 가능한 한 원래의 내용과 발음을 충실히 기록하되 음만 있고 글자가 없는 경우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표시하는 방식을 채용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향후 대만어 문자화 실험의 시작이 되었다. 1931년 8월 1일 『대만신민보(台灣新民報)』는 논설 「대만문학의 정리와 개척」¹⁸⁾을 게재하고 다시 한 번 민간문학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문학의 기능은 인생의 표현으로 국적과 시대를 막론하고 각 지방의 문학은 모두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조상들이 대만에 이주해 온 지 이미 300여년이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전해오는 문학작품은 대만문학의 고유한 유산이다. 대만지방문학의 특색을 유지하고 대만의 문화를 제고하기 위해 문학가들은 대만 본래의 지방문학을 정리해야 하며 그 범위는 시가(동요와

18) 「台灣文學的整理和開拓」, 『台灣新民報』第375號, 1931.8.1.

민요), 희곡, 소설과 논저 등이다.’ 고유의 대만문화를 간직한 민간문학에서 양분을 섭취해 근대문학 창작의 밑거름으로 하겠다는 이런 주장은 대만총독부의 근대화와 동화주의정책에 대응하는 문화적 대항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식민지하 대만에서 민간문학에 대한 관심과 정리의 목소리는 근대 문단에서 뿐만 아니라 전통문인들에서 먼저 나왔다. 1926년 장숙자(張淑子, 1881-1945)가 속담(俚諺), 동요(童謠), 수수께끼(謎語)등을 엮어 편찬한 『교화삼미집(教化三味集)』은 주로 교화에 목적을 둔 관계로 진솔한 감정을 담은 사랑노래(情歌)등은 수록하지 않았지만 1927년 정곤오(鄭坤五, 1885-1959)가 『대만예원(台灣藝苑)』을 통해 수집한 『사계춘(四季春)』 등 40여수를 대만국풍(台灣國風)이라 칭하면서 시경(詩經)이 가지는 문학, 사회적 가치를 대만의 민간가요에 부여했다. 또한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유한계급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여 골계적인 내용과 취미 위주로 시대에 대한 관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전통적인 한문화를 계승하고자 한 매체인 『삼육구소보(三六九小報)』에서도 나무꾼의 노래(黛山樵唱)란을 개설하고 사랑노래(情歌), 동요(童謠), 전설(傳說), 이야기(故事)등 민간문학을 수집하여 기록했으며 민간가요를 모방한 창작도 실었다. 이 신문에서 활동한 임금랑(林琴郎)의 말에 의하면 민간가요는 솔직하고 진실한 정감과 자연스런 음율을 갖추고 있고 동요는 민속을 잘 보여주며 전설은 민중들의 습관이 드러나고 고사는 정사(正史)에서 놓치고 있는 자료를 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통문인의 대표자로 일컬어지는 연횡(連橫, 1878-1936)은 이 신문에서 연재한 내용을 모아 『아언(雅言)』을 펴냈는데 전통습속과 문화를 포함한 많은 영역의 자료는 물론 속담(里諺), 민요(民謠), 동화(童話), 탄사(彈詞)¹⁹⁾, 수수께끼(燈謎)²⁰⁾, 은어(隱語) 등 민간문학도 다수 들어 있다. 이를 통해 1920년대 후반부터 신구문단을 막론하고 민속적 연구

자료와 민중생활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민간문학의 정리열기가 지식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통인식 하에서 근대문단의 민간문학논의는 당시 문단의 주요 의제였던 문예대중화의 추진방식 논의와 연관되어 대만말의 문자화에 필요불가결한 일종의 수단으로 여겨져 그 중요성과 실효성이 한층 더 구체화되었다. 좌익예술운동에서 문예대중화 문제는 ‘예술은 민중에게 속하는 것’이며, 민중이 예술 창조와 향유의 주체이고, 예술은 민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또 민중에게 복무한다는 예술의 일반적 본성의 하나인 ‘민중성’에 근거를 두고 이를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다. 즉 노동자, 농민대중의 생활감정에 기초한 올바른 문예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대중의 현실을 인식하고 대중들이 자신의 현재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며, 더 나아가 대중들 자신이 예술을 창작하고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1920년대 문화계몽과 민족주의 기조에서 진행된 대만의 근대문학운동은 그 담당층이었던 자산계급이 식민통치 아래서 개량화되었고, 근대화와 사회변천 속에서 급속히 진행된 계급분화, 그중에서도 특히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대만인은 일본의 독점자본이 총독부의 비호 아래 농민들의 토지를 대량 수매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소작농으로 심지어 제당회사의 노동자로 전락했다. 이러한 민족과 계급모순의 중첩현상에 대한 이해방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1927년을 전후해 문화계몽운동과 그 담당층인 지식인 계층은 분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이론과 좌익관점을 제국주의 하 식민지 대만사회를 분석하는 근거로 삼고 계급해방을 통한 민족해방을 모색하던 좌익성향의 지식인들은 신문협(新文協)과 농민조합(農民組合), 대만

19) 彈詞는 한국의 판소리와 비슷한 설창예술로 운문과 산문의 종합체인데 말하는 부분과 노래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20) 주로 대보름 등에 달아서 내는 수수께끼를 말한다.

노동자총연맹(台灣工友總聯盟), 대만공산당(台灣共產黨) 등을 기반으로 사회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1929년과 1931년 두 차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 좌익기반의 사회운동은 궤멸되었고 대부분 문학을 통한 민중계몽과 사회운동의 불씨를 살려 나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의 민중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문예대중화 논의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이 과정에서 1930년대 전반기의 향토문학/대만화문논쟁(鄉土文學/台灣話文論爭)이 일어났다. 이 논쟁의 주요골자는 무산대중들에게 어떻게 문예를 전달할 지에 관한 것으로 그들의 낮은 식자률이 최대 장애로 인식되면서 근대문학을 어떤 언어로 창작할 것인가를 두고 전개되었다. 즉 대중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지식인들의 문학어 사이에 큰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1920년대 『대만민보(台灣民報)』를 무대로 한 대만근대문학은 중국백화문을 기본적으로 사용했지만 무산대중들의 언어는 대만화문(台灣話文, 閩南語와 客家語를 가리킴)으로 서로 달랐고, 또한 이들 방언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한자(漢字)로 표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 문학어로의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식인의 언어인 중국백화문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가능한 한 무산대중들의 언어인 대만화문(台灣話文)으로 창작하여 그들이 보다 용이하게 문예를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중 중국백화문 주장자들은 백화문이 이미 통용되고 있는 문학어이고 대만화문 역시 한자표기가 가능한 부분이 많으며 장래 중국의 무산대중과의 연대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반해 대만화문 주장자들은 실제 대만민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이 처한 현실을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²¹⁾ 문제는 대만화문을 문학어로 채택

21) 鄉土文學/台灣話文論爭에 대해서는 최필순, 「1930년대 대만문단의 향토문학/대만화문논쟁의 쟁점과 성과」, 『식민과 냉전하의 대만문학』, 101-133면 참고.

할 경우 민중들의 높은 문맹률은 차치하고 소리만 있고 글자가 없는 표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대만화문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문학을 통한 신자(新字)제정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각 지역마다 다르게 발음되는 문제를 통일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1931년 8월 대만화문을 주장한 곽추생(郭秋生, 1904-1980)은 『대만신민보(台灣新民報)』의 독자공원란(讀者公園欄)에 「‘대만화문’ 건설을 위한 한 제안」²²⁾을 게재하고 황석휘(黃石輝, 1900-1945)의 대만화문 사용주장에 동조하면서 대만말의 문자화 문제를 제기했다. 각지에서 통용되는 문자를 통일하고 이를 민중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교본(敎本), 사전(字典), 사전(辭典)등의 편찬이 필요한데 이는 민간가요의 정리로부터 착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가요가 시(詩), 서(書), 개인문집(文存)보다 훨씬 더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문맹상태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아동의 노래(兒歌), 동요(童謠), 수수께끼(謎語)등을 들려주면 그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자로 읽게 될 경우 빠르고 쉽게 글자를 깨칠 수 있게 된다.” 이어 그는 대만 각지에서 유통되는 가요를 수집하고 정리하면 민간에서 통용되는 현행 공통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공통어를 기존 한자로 표기하거나 문자로 표기할 수 없는 방언은 수집된 가요에 근거하여 새로운 문자를 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대중들의 언어인 대만화문을 되도록 많이 채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일된 언어를 만들어내고 음에 적합한 글자를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만화문은 지방특색을 갖추고 있어 대만의 향토문학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하기에 대중본위 시대 근대문학의 이기(利器)가 되며 다시 문자화된 가요를 통

22) 「建設‘臺灣話文’一提案」, 『台灣新民報』第379號, 1931.8.29.

해 대중의 식자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예대중화의 실천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민간문학의 수집과 정리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어가 신세대를 중심으로 공적 언어로 사용되고 대다수 민중들은 통일되지도 않고 문자화 체계를 갖추지 못한 대만화문을 사용하여 문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요 등 민간문학의 채집은 민중의 언어를 보존하는 동시에 일본어 상용에 대항하는 문화적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하겠다.

『대만신민보(台灣新報)』는 가요채집과 동시에 새로 창작한 가곡(歌曲)을 실었는데 작가인 퇴화(賴和, 1894-1943)가 작사하고 음악가 이금사(李金士)가 작곡한 「농민요(農民謠)」를 서광란(曙光欄)을 통해 선보였다. 이 노래는 대만화문의 형식으로 식민통치하 농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었으며 그밖에도 신악부(新樂府), 상사가(相思歌), 장난꾸러기(呆團仔), 상사(相思) 등 대중에게 전파와 보급이 가능한 가요를 창작하여 문예대중화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민간문학의 채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문학에서 채취한 공통어를 사용한 새로운 창작을 통해 실제적으로 대중의 언어생활과 문학보급에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식민지시기 대만인의 유일한 언론기관으로 알려진 민보(民報)계열 신문의 이러한 노력은 1930년대의 전문 문예지에도 계승되었다.

그 첫 예로 『남음(南音)』을 들 수 있다. 1931년 주정산(周定山), 장수승(莊垂勝), 엽영종(葉榮鐘), 퇴화(賴和), 곽추생(郭秋生), 진봉원(陳逢源) 등 다수의 근대문인들이 대만문화의 제고(提高)와 생활의 향상(向上)을 목적으로 문예의 보편화를 내걸고²³⁾ 창간한 잡지로 대만화문토론허(台灣話文討論欄)은 문예대중화의 실천장이 되었는데 창간인 중의 한 명인 곽

23) 奇, 「發刊詞」, 『南音』創刊號, 1931.1.1.

추생(郭秋生)은 앞서 보았듯이 대만화문의 제창자로 이 잡지를 통해 대만 말의 문자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했다. 그는 대만 각 지역에서 수집해 온 향토가요, 민요 등의 민간문학을 분석하여 신자(新字)의 제정, 신사(新詞)의 건립을 시도했고 이후 『대만민간문학집(台灣民間文學集)』을 펴낸 이 헌장(李獻璋, 1914-1999)도 『남음(南音)』을 통해 많은 량의 가요를 채집하여 수록했다. 이 잡지에 실린 명당(明塘)의 「민가(民歌)의 유래에 대한 개론」²⁴⁾은 전체 중국가요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 소개하는 문장인데 모든 가요의 시작은 고래로부터 민중들이 사물을 기억하고 정감을 표현하기 위한 노래에서 기원한 것으로 대만의 산가(山歌) 역시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 중국가요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두 지역의 산가(山歌)를 병렬하여 독자들이 그 속의 정의(情意)를 비교해 보도록 하면서 시사(詩詞)보다 자연스럽고 생명력이 강한 민간문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전부터 민간문학의 가치를 설파해왔던 정곤오(鄭坤五)도 「향토문학에 관한 몇 마디」²⁵⁾에서 문화와 언어의 지역적 특색을 강조하고 대만어의 유음무자(有音無字)한 부분에 대해 한자(漢字)로 표기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기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문인아사(文人雅士)들이 조속(粗俗)하고 비천(鄙淺)한 속물(俗物)이라고 배척하는 민간가요나 희곡에서 자연스러운 대만백화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장래 대만백화문으로 된 작품이 탄생하면 그 ‘하늘이 내려 스스로 울리는’ 가곡이 수백 년 동안의 멸시를 박차고 일약 세계문단의 일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하면서 민족문화의 보고(寶庫)인 민간문학을 추켜세웠다. 이렇듯 대중문예를 표방한 『남음(南音)』은 모두 12기가 발간되는 동안 농후한 향토풍격을 가진 민간문학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실으면서 그에 그치지 않고 대만화문의 문

24) 「民歌(山歌)由來的概論」, 『南音』1卷2號, 1932.1.15.

25) 「就鄉土文學說幾句」, 『南音』1卷2號, 1931.1.15.

자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대만화문잡설(台灣話文雜駁), 대만화문의 신자문제(台灣話文의新字問題)등 대만화문건설과 관련된 고정란이 마련되어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만 본도(本島)의 근대지식인 이외에 왕백연(王白淵, 1902-1965), 오곤황(吳坤煌, 1909-1989)등 당시 일본에 유학중인 대만학생들도 무산계급 예술운동의 영향을 받아 도쿄(東京)에서 대만인문화서클(台灣人文化圈)을 조직했는데 초기의 좌익색채는 성원인 엽추목(葉秋木, 1908-1947)이 시위에 참가한 죄목으로 체포되면서 약해졌지만 장문환(張文環, 1909-1978), 무영복(巫永福, 1913-2008)등이 참여하면서 진정한 대만문화 건설을 내세우고 대만예술연구회(台灣藝術研究會)로 재정비해 문예지 『폴모사(フォルモサ)』를 창간했다. 창간사를 보면 “현재 쇠약한 대만문예를 민간에서 회자(膾炙)되는 가요, 전설 등 향토예술의 정리와 연구를 통해 보충하여 적극적으로 진정한 대만문예를 다시 창조하자”²⁶⁾라고 하여 민간문학을 근대문학을 재건하는 재료로 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편집부장인 소유웅(蘇維熊, 1908-1968)이 쓴 『대만가요시론』²⁷⁾은 상술한 『대만신민보(台灣新民報)』에 실린 성민(醒民)의 문장에 대한 호응의 성격을 가지는데 민족의 정신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금광이 민간문학이며 평민생활의 진실한 면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잘 정리, 연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가요의 연구는 자수(字數), 귀수(句數), 운율(韻律), 기승전결(起承轉結) 관계 등 형태적인 측면과 그 속에 담긴 천명사상(天命思想), 관료사상(仕官思想), 구가정제도(舊家庭制度)의 문제, 농민문제, 아편문

26) 『創刊の辭』, 『フォルモサ』創刊號, 1933.7.15.

27) 『台灣歌謠に對する一試論』, 『フォルモサ』創刊號, 2-15면.

제 등 내용적 측면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면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비록 3기에 그쳤지만 일본에서 발행된 문예지 『폴모사』의 민간문학 토론은 민족정신의 보존과 대만사회의 문제해결에 참고가 되며 나아가 근대문학을 제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써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1930년대 대만문단은 식민지 검열과 언론출판에 관한 각종 규제로 인해 문예지 발간과 작품창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작품내용에 대한 검열은 물론이고 중국어는 낮추고 일본어 비중을 높이라는 주문이 명시적으로 강제되면서 대부분의 문예지 수명은 매우 짧았다. 그럼에도 문학창작의 방향에 의견을 같이 하는 집단이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문예지를 발간했다. 1933년 곽추생(郭秋生), 주점인(朱點人, 1903-1951), 황득시(黃得時, 1909-1999), 료육문(廖毓文, 1912-1980) 등 좌익성향의 북부지역 문인들이 조직한 대만문예협회(台灣文藝協會)와 그 기관지 『선발부대(先發部隊)』와 『제일선(第一線)』 역시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문예지는 모두 단 1기에 그쳤지만 문학이 유한인사의 소일거리(消遣)이나 생활의 여흥(餘興)이 아니고 사회개조와 문화재건의 이기(利器)라는 의식을 가지고 미래세대와 그들의 생활에 계시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따라서 『제일선(第一線)』에 마련된 대만민간고사특집(台灣民間故事特輯)은 민간문학을 전면에 내세우고 근대문학, 문화의 재건과 대만사회 문제의 인식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1930년대 문단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대만문화와 문학의 재건은 계몽주의로 시작한 근대문단이 구체적인 독자층을 대만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산대중으로 상정하면서 그들의 수요와 정서를 반영하고 나아가 그들이 문학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이에 부합되는 문학의 내용과 문학어를 사고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제일선(第一線)』의 「권두언-민간문학의 인식」²⁸⁾에서 황득시(黃得時)는 인류가 생활해 온 이래 가요, 전설, 신화 등 민간문학이 있었다. 가요

(歌謠)는 원시인의 자연에 대한 찬미를 전설과 신화는 원시인의 자연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데 전자를 통해서선 선민들의 감정을 후자를 통해서선 이성을 볼 수 있다. 민간문학에 대해서는 이미 유럽 각국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수집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오사를 전후하여 민간가요와 고사를 채집해 연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만의 민간문학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지 못하므로 신구교체기인 지금 빨리 기록하지 않으면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민간문학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 『대만신민보(台灣新民國報)』의 주간(週刊) 시절부터 백여편의 시가를 수집하기는 했지만 전설고사는 몇 편에 지나지 않으며 그 후 『남음(南音)』과 『삼육구소보(三六九小報)』에서도 지속했으나 여전히 가요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부족한 전설과 고사를 본 잡지에서 수집하여 신되 우선 가능한 한 많은 양을 모으고 정리와 연구는 그 다음단계로 진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민간문학 수집과 연구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하에 『제일선(第一線)』의 대만민간고사특집(台灣民間故事特輯)은 15편의 민간고사를 신고 어떤 기준에서 채집해야 할지 기록과정에서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등에 대해 H.T.생(林克夫)의 「전설의 재료선택과 묘사에 대한 여러 문제」²⁹⁾를 실었다. 이 문장은 고래로 전해지는 전설과 고사는 대부분 사회변천과 경제변동에 의해 생겨난 비분강개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대대로 전래되는 동안 비과학적인 색채가 가미되었으므로 근대과학의 객관적인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채취하고 기록해야 하며 동시에 근대예술의 수법으로 묘사해 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민간문학을 있는 그대로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사회변천에

28) 得時, 「卷頭言-民間文學的認識」, 『第一線』2, 1935.1.6, 1면.

29) 「傳說的取材及其描寫的諸問題」, 『第一線』2, 36-39면.

대한 이해를 전제로 취급해야 하며 기록과정에서도 근대문학의 기준에 맞게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간문학의 현재적 가치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민요, 가요, 민가 등의 민간문학에 대한 생각은 말리(茉莉)의 『민요에 대한 의견』³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들 민간문학이 사회와 경제조건의 변화로 인해 그 형식과 내용이 결정지어졌다는 유물론적 예술관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민요는 민족의 공동정감과 역사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민족의 구심력을 높일 수 있어 장래 민족국가의 독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 몽고, 이태리, 일본의 가요가 각 지역의 향토배경이 달라 표현에 차이를 가지고 있듯이 대만의 민요도 우리의 특색을 갖춘 것으로 진정한 향토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중의 예술인 관계로 시대와 계급을 초월해 민족의 감성과 문화를 전승하지만 그럼에도 경제사회적 조건이 민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민요에 대한 이해에서 이 특성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 즉 민요를 통해 민족의 역사, 즉 각 시대의 물질적 환경과 그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역시 단순한 기록과 보존에 그치지 않고 당대 대만사회를 사고하는 데 참고로 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편집후기(編輯後記)』³¹⁾에서 『제일선(第一線)』의 민간고사 15편은 『복건고사집(福建故事集)』에 수록된 것을 제외한 대만지역에서만 전해져 오는 것으로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민족고유의 유산이므로 민속학적 자료로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민간문학운동은 개인적 취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단체가 성립되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제일선(第一線)』의 대만민간고사특집(台灣民間故事特輯)이 나온 후

30) 『民謠に就いての管見』, 『第一線』2, 40-52면.

31) 『第一線』2, 163면.

동시기 문예지인 『대만문예(台灣文藝)』에서 민간고사의 채록과 기록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야랑(夜郎)은 『『제일선(第一線)』소감』³²⁾에서 민간문학의 보존은 찬성하나 『제일선(第一線)』에서 채집한 민간고사는 예술적 가치로 볼 때 민간에서 구전되는 것보다 못하며 심지어 미신을 전파할 위험성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일종의 반동(反動)이며 취할 바가 못 된다고 했다. 이에 현재 전체내용은 찾을 수 없으나 이헌장(李獻璋)이 즉각 『민간고사의 정리는 의무인가, 아니면 반동인가-야랑(夜郎)씨의 어리석은 견해를 반박한다』³³⁾로 반박했는데 구전(口傳)의 진실성 여부, 재료의 처리문제, 민간고사의 용도와 수집자의 태도, 내용상의 모순과 허구성분 등에서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문예(台灣文藝)』 동인이었던 류첩(劉捷, 1911-2004) 역시 『민간문학의 정리와 그 방법론』³⁴⁾에서 민간문학의 유산은 무시할 수 없지만 과거문화의 계승에는 비판적 섭취와 가공이 필요하다면서 이럴 때만이 새로운 문화와 예술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문학운동이 일기는 했으나 여전히 기록과 정리에 그치고 적절한 연구방법이 없어 민간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었다. 연구방법으로 그는 서구의 실증주의 방법론이나 민족학과 인류학적 방법, 사회주의 문예이론, 프로이드 심리학 등을 들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방식이 고대와 다르므로 민간문학에 공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문학지상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여 교육과 학술연구의 자료로 삼으면 된다고 했다. 즉 민간문학이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본질적으로 과거의 산물이므로 반드시 유산에 대한 재인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새로운 예술의 창조에 도움

32) 「讀『第一線』小感」, 『台灣文藝』2卷2號, 1935.2.1., 95-97면.

33) 「整理民間故事是義務, 還是反動-駁夜郎氏的愚言囈語」, 『台灣新民報』, 1935.4.5.

34) 「民間文學の整理びその方法論」, 『台灣文藝』2卷7號, 1935.7. 116-123면.

이 된다는 것이다.

민간문학 수집과 정리를 둘러싼 이러한 의견대립은 당시 대만문단의 면모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데 우선 좌익성향의 대만문예협회(台灣文藝協會)와 기관지 『제일선(第一線)』, 그리고 대만문화인의 대단결을 호소하며 좌우합작으로 결성된 대만문예연맹(台灣文藝聯盟)과 기관지 『대만문예(台灣文藝)』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민간문학이 민족의 고유한 유산이고 보존의 의무가 있다는 점은 양 진영이 모두 동의하지만 전자가 문예지를 통해 체계적으로 민간문학을 채집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 후자는 무산대중의 문학에 대한 편애로 계급성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전자가 무산대중을 문학의 주체로 상정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이해하기 위해 민간문학을 중시한 것이고 이와 다르게 후자는 민중을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자산계급 지식인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⁵⁾ 이들에게 근대문학은 현대생활의 반영인 동시에 예술성, 문학성을 갖춘 개인의 창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민간문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근대적 가치관이 근대문학의 창작에 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란 생각에 회의적이었던 것이다.

1934년 장심체(張深切, 1904-1965), 퇴명홍(賴明弘) 등이 타이중(台中)에서 전도문예대회(全島文藝大會)를 열고 결성한 대만문예연맹(台灣文藝聯盟)은 날로 심화되는 식민지 사상통제와 언론에 대한 검열에 대응해 좌우를 막론하고 전대만 문화인들이 단결하여 시국을 돌파해 보자는 의도로 각지에 지부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갔고 그 기관지 『대만문예(台灣

35) 그러나 대만문예에 참여한 좌익성향의 작가는 여전히 민간문학의 수집과 정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1934년 12월 23일 『台灣文藝』北部同好者座談會에서 논의된 대만문예의 진흥방안에서 廖漢臣이 제기한 의견이 대표적이는데 그는 가요수집의 구체적인 성적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더 많이 모아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台灣文藝』2卷2號(1935.2.1.), 1-7면.

文藝』도 15기까지 발행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갈수록 진보성을 상실하고 일본어 창작이 많아지는 등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그 결과 양규(楊逵, 1906-1985)를 위시한 문인들이 따로 나가 『대만신문학(台灣新文學)』을 발행했는데 진보적 문학을 천명한 이 잡지는 사실적 색채와 항의정신을 강조했으며 민간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700자에 달하는 「신유일가시(辛酉一歌詩)」를 들 수 있는데 1925년 작가 퇴화(賴和)가 한자로 기록한 대만어 노래가사로 1936년 양수우(楊守愚, 1905-1959)가 정리하여 잡지에 수록했다.³⁶⁾ 가사의 내용은 신유년인 1862년 대만생(戴萬生)이 청조 관원의 핍박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관핍민반(官逼民反) 사건으로 당시 민간의 생각과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주와 해석을 첨가하여 대만 민간사회의 집단기억을 완전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정사(正史)에서 보기 어려운 사료로서의 가치도 뛰어나다.

이러한 1930년대 대만문단의 민간문학운동은 1937년 4월 1일 전면적인 중국침략을 앞두고 대만총독부가 신문과 잡지에서 한문란(漢文欄)을 폐지함으로써 중단되고 대만인 주도의 근대문단도 좌절되었다. 이어 전쟁시기의 민간문학 수집은 총독부정보부(總督府情報部) 주도로 전쟁 배후이데올로기인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맞추어 진행된 대동아민속학의 일환으로써 발행된 『민속대만(民俗台灣)』에서 보이는데 광범위한 대만풍속과 민속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민간문학 수집은 1930년대의 근대문인들이 가졌던 식민통치와 동화정책에 대한 대항으로서 민족문화의 보존, 문예대중화 사고와 대만말 문자화, 근대문학과 대만문화향상의 참고자료 등의 목적과는 달리 철저히 일본이 도발한 아시아 침략전

36) 楊清池, 「辛酉一歌詩」, 『台灣新文學』1卷8號(1936.9.19.), 125-132면-1卷9號(1936.11.5), 63-72면.

쟁의 명분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전략한 것이었다.

3. 1930년대 대만문단의 민간문학 수집성과

1930년대 대만근대문단에서 민간문학의 성격과 수집의 필요성 및 정리와 연구방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논의를 앞 절에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당시 수집된 민간문학의 유형과 내용의 개략적 면모를 1936년에 나온 『대만민간문학집(台灣民間文學集)』을 대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제일선(第一線)』의 대만민간고사특집(台灣民間故事特輯)에 참여한 바 있고³⁷⁾ 『대만신민보(台灣新民報)』에 『대만수수께끼편찬(台灣謎語纂錄)』³⁸⁾을 연재하기도 했던 이헌장(李獻璋)이 3-4년에 걸쳐 대만 각지에서 수집한 천여수의 가요(歌謠), 동요(童謠), 수수께끼(謎語)와 10여명의 동료 문인들이 정리한 23편의 민간고사(民間故事)를 모은 것으로 당시 민간문학의 집대성으로³⁹⁾ 일컬어졌다. 발행처는 대만문예협회(台灣文藝協會)이고 대만신문학사(台灣新文學社)에서 판매했는데 “대만인 전체의 심혈의 기록이며 선민의 유산을 품고 있는” 성과라고 광고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자서(自序)에서 이헌장(李獻璋)은 『대만신민보(台灣新民報)』의 가요모집 이래 민간문학 정리의 역사를 일별한 후, 『제일선(第一線)』의 민간고사특집(民間故事特輯)이 나간 후 문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용기를 북돋아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

37) 李獻璋, 「過年的傳說」, 『第一線』2, 18-19면.

38) 『台灣新民報』924號-944號, 1933.9.15.-10.6.

39) 黃得時, 「關於台灣歌謠的搜集」, 『台灣文化』6卷三四期合刊, 1950.12.1., 31-38면.

면서 신문학운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민간의 가요와 전설도 주목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식인들이 외국의 작품이나 외국 문물만 입에 올리고 자기의 것을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대만의 원시적인 가요, 전설도 매우 중요한 문학의 한 종류이며 이는 세계 다른 지역의 문학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민간문학은 민족전체의 공동창작이며 지배체제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 민중들이 생활과 사상을 가감 없이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 문학적, 민속학적 가치로 볼 때 문사들의 시사(詩詞)보다 결코 낮지 않다. 또한 민간문학은 선민들이 공감한 정서의 총합으로 시적 상상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그들의 우주관, 종교신앙과 자연관과 생활모습을 담고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구비문학(口碑文學)의 채집은 그것이 만들어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성립과정을 잘 추측하여야 하는데 본서에 수록된 고사와 전설은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만의 선민들이 지방색채와 시대사조를 가미하여 완전히 자신의 문학으로 전환한 것으로 복건성(福建省) 취엔저우(泉州)의 것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근래 들어 방언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민간문학을 기록하는 문자의 선정에 매우 신중을 기했다.”고 하여 세계문학과 동일한 가치의 지역문학, 민중의 생활과 정서에 대한 공감, 민족적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감, 민간문학의 언어학, 역사학, 문학적 가치에 대한 평가 등 학문과 예술에 대한 근대적 인식에 의거하여 민간문학의 수집과 정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근대문학 작가 중 초기부터 민간문학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채집에 나서기도 했던 퇴화(賴和)⁴⁰⁾ 역시 서문을 통해 민간문학 수집에 대한 비난에도

40) 賴和는 「讀台日紙的新舊文學之比較」(『台灣民報』89號, 1926.1.24.); 「謹復某老先生」(『台灣民報』97號, 1926.

3.21.); 「開頭我們要明瞭地聲明著」(『現代生活』創刊號, 1930.10) 등의 문장에서 서

불구하고 시간과 물질적으로 많은 헌신을 한 이헌장(李獻璋)의 노고를 치하하고 출판의 감회를 피력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민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생명력을 가진 민간문학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 편의 이야기, 한 곡의 가요는 모두 당시의 민정, 풍속, 정치, 제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민중의 진실한 사상과 감정 그 자체이다. 따라서 민속학, 문학 심지어 언어학상으로 보아도 보존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조상들이 대만에 온 지 300여 년 동안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으로 그 사정은 세계 여러 나라와 다를 바 없다. 세계 각국에서 민속학자와 문학가들이 자신들의 민간문학을 수집하고 정리해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는 매우 적은 양이 잡지나 신문에 실릴 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고사의 수집은 매우 쉽지 않은데 동일한 이야기기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동일한 지역에서도 차이가 나며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다수의 노인을 만나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것을 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코 채집자의 합리성 유무 판단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역사적인 고사의 경우 지역의 고관대작과 관련된 내용이면 후대 가족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안 왜곡되거나 심지어 괴담이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에 채집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⁴¹⁾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판을 앞두고 민간에서 온 이 문학집이 다시 민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여 이헌장(李獻璋)과 마찬가지로 민간문학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특히 조상이 물려준 유산의 보존이 후손의 임무임과 동시에 문자로

민의 정감이 담긴 노래의 문학적 가치를 강조했다.

41) 실제로 수집된 민간고사를 두고 霧峯林家와 관련이 있어 『台灣民間文學集』에서 삭제된 일이 있었다. 본문의 표 23번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王美惠, 전계논문 제4장(107-152면)을 참고.

쓰인 민간문학을 다시 민간으로 돌려보내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들의 민족과 지역문학의 중시, 민중의 삶과 그들의 정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 방언 문자화와 민족시에 대한 자료로서의 민간문학 채집의 중요성 등은 식민당국이 주도하는 급속한 근대화와 동화정책에서 맞서 최소한의 민족 근거를 지키는 동시에 민중을 주체로 한 대만근대문학의 방향설정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대만민간문학집(台灣民間文學集)』에 실린 민간문학의 유형과 내용, 그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요편(歌謠篇)은 민가(民歌) 573수, 동요(童謠) 151수, 수수께끼(謎語) 271수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 수수께끼는 이전에 『대민신민보(台灣新民報)』에 게재하여 대만화문 주장자들에 의해 풍부한 참고자료로 평가를 받았으며 민가와 동요부분은 직접 채집한 것과 이전의 잡지와 신문에서 선별해 온 것을 실었다.⁴²⁾ 민가(民歌)의 내용은 일반 민중의 생활을 표현한 노래, 남녀 간 그리움을 표현한 사랑노래, 풍자를 곁들인 골계가(滑稽歌), 속요(俗謠)나 의식(儀式)에 사용되던 노래, 부녀자의 처지를 그린 노래 등으로 나뉘는데 아래 이들 몇 수를 들어 보면,

歹命落下港, 要錢無要人, 父母不知子輕重, 查某不比查甫人。(民歌)
 팔자가 사나워 시골로 팔려가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디네. 부모가 자식의 소중함을 모르니 딸이 아들 못지 않네.

一步送君上樓頂, 腳來蹴地手搥胸, 前世無做歹心行, 串交阿君侬絕情!(民歌)

남편을 잘 되게 뒷바라지 했더니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네. 전생에 나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어찌 이리 나쁜 사람을 만났을고!

42) 이에 대해서는 王美惠 전계논문 제2장(15-106)을 참고.

嬰仔搖! 一冥大一寸, 嬰仔惜, 一冥大一尺。(童謠)

아가야. 흔들어 줄게. 하루 밤에 일 촌이 자라지. 아가야 예빠해 줄게.
하루 밤에 한 척이 자라지.

頂山合下山, 中央一塊牛肉干。(謎語, 舌)

윗산과 아래산이 합쳐지는데 말린 소고기가 가운데에 하나 있다.

空穀子, 軟枝樞, 早結子, 晚開花。(謎語, 稻)

빈 껍질에 부드러운 줄기, 아침에 열매 맺고 저녁에 꽃이 핀다.

전체적으로 보아 민가(民歌)는 대만민중의 일상생활의 애환, 절기의 변화, 생업과 세시풍속,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여성의 고단한 삶을 노래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요(童謠)는 윤리적 측면이나 장유유서 등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 많고, 수수께끼(謎語)는 생물이나 사물을 비롯한 인간세상의 여러 현상들을 기지가 넘치는 몇 줄의 문자로 담아내고 있다. 가요편에 실린 노래들은 모두 대만화문을 한자로 표기하여 하여 민중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채록하였는데, 이헌장(李獻璋)이 말한 것처럼 당시 진행되고 있던 방언연구를 의식하여 문자의 기록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으며 『대만민간문학집(台灣民間文學集)』 이전의 채록에서 혼용되었던 약(若, ‘나’로 발음됨)과 야(佻, ‘구야’로 발음됨), 나(那, ‘나’로 발음됨)와 재(才, ‘짜이’로 발음됨)를 구분해서 쓰고 대만말의 실제 음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로마자의 표기를 채용하는 등 한자와 로마자가 병용되고 있다.

고사편(故事篇)은 모두 23편을 싣고 있는데 집필자 14명은 북부지역의 이헌장(李獻璋), 황득시(黃得時), 료육문(廖毓文), 왕시랑(王詩琅), 주점인(朱點人)등 대만문예협회(台灣文藝協會) 성원과 남부 장화(彰化)지역의 퇴화(賴和), 주정산(周定山), 양수우(楊守愚), 황조동(黃朝東)등 대만신문학사(台灣新文學社) 관련 문인들로 모두 근대문학의 중요한 작가가

며 대부분 좌익성향의 문학결사에 참여했다. 23편의 민간고사 내용은 대부분 대만의 역사인물의 전설과 관련이 있고 대만의 각 지역에서 채집했다. 전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집필자	제목	전래지역	내용 개략
1	朱鋒	鴨母王	赤崁 (台南)	청조의 폭정에 반란을 일으켜 대만의 부성(府城)인 타이난(台南)을 점거하고 삼일천하를 이룬 주일귀(朱一貴)의 이야기
2	守愚	美人照鏡	彰化	관청과 결탁 사람들을 괴롭히던 정수재(鄭秀才)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당자리에 대저택을 짓고 온갖 호사를 누리다가 마조신(媽祖神)맞이 행사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집이 불타고 낭패를 보는 이야기
3	黃石輝	林大乾兄妹	鳳山 (高雄)	청조의 억압에 반란을 일으킨 임대건(林大乾)이란 결출한 인물이 여동생과 같이 관군에 쫓기자 여동생이 자신이 죽어 은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야기
4	夜潮	林道乾與十八携籃	打鼓 (高雄)	신선이 나타나 임도건(林道乾)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장래 황제가 될 것이라 하지만 일이 어긋나 여동생을 죽이고 백금을 같이 묻어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
5	李獻璋	石龜與十八義士	諸羅 (嘉義)	임상문(林爽文)의 반란사건과 19공묘(十九公廟)의 유래
6	李獻璋	林半仙	鳳山	특별한 능력을 가진 풍수사 임반선(林半仙)이 선량한 농부를 도와주고 은혜를 모르는 이들을 벌주는 이야기
7	李獻璋	一日平海山	諸羅	짐 없이 떠돌던 왕득록(王得錄)이 토지공(土地公)의 도움을 받아 관병이 되고 해적을 물리치는 전공을 세워 황제를 알현하고 금의환향한 이야기
8	愁洞	無錢打和尚	笨港 (雲林)	어리석은 사람이 부친의 유언을 잘못 해석하여 스님을 때렸으나 스님이 기지를 발휘해 도리어 보물을 챙기는 이야기
9	夜潮	鄭國姓打台灣	打鼓	鄭成功이 신선의 탁몽을 받아 3가지 보물을 얻고 대만으로 와서 反清的 근거지로 삼는 이야기
10	黃得時	國姓爺北征中的傳說	台北	정성공(鄭成功)의 여러 치적과 특이한 능력
11	林越峯	葫蘆墩	豐原	후루툰(葫蘆墩) 지명과 지형과 관련된 이야기
12	懶雲	善訟人的故事	彰化	백성들이 단결하여 산을 소유하고 묘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지방의 부호를 관아에 제소하여 재판에서 이기는 이야기

13	點人	媽祖的廢親	諸羅	마조(媽祖)가 혼인을 파기한 전설
14	一吼	愍光義	鹿港	감광의(愍光義)라는 인물의 일화
15	毓文	張得寶的致富奇談	艋舺 (台北)	장포(張泡)라는 이가 중국과 대만을 오가면서 명자(艋舺)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이야기
16	毓文, 守愚, 點人, 獻璋	邱妄舍	全島	구망사(邱妄舍)의 기이한 출생과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
17	王詩琅	陳大懋	大嵵崁 (大溪)	진대당(陳大懋)은 착한 사람이나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어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다 비명횡사하고 이를 두고 사람들은 착한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탄함
18	李獻璋	過年緣起	大嵵崁	설날을 보내는 많은 습속이 천재지변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
19	病夫	汪師爺造深圳頭	彰化	왕사야(汪師爺)가 백성을 위해 관개도랑을 만들려고 하나 지방 유력인사의 반대에 부딪히자 기지를 발휘해 해결하는 내용
20	朱峯	林投姐	赤崁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귀신이 되어 복수하는 내용
21	朱峯	賣鹽順仔	赤崁	지방 세력이 서로 대립하던 시기에 소금팔이가 질서를 유지했으나 중국에서 온 스승과 제자를 만나 떠나자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내용
22	朱峯	郭公候抗租	赤崁	곽공후(郭公候)가 농민들을 위해 싸우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양살이를 가지만 그래도 민중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내용
23	守愚	壽至公堂	彰化	민란을 평정한 공이 있는 임가(林家)도 권력을 잡고 부귀하게 되자 백성을 괴롭히다가 관아의 권력다툼에 휩쓸려 사망하는 내용

표에서 확인되듯이 민간고사는 대부분 청초 시기 한인(漢人)들의 이야기로 정성공(鄭成功, 1624-1662), 주일귀(朱一貴, 1690-1722), 임상문(林爽文, 1756-1788) 등 역사적 인물의 사적과 탐관오리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열망이 결합된 역사적 전설, 신선이나 토지공(土地公)의 도움을 받아 특이한 능력을 갖추게 된 평범한 인물들이 이 능력으로 인해 부귀를 누리거나 혹은 잘못 사용하여 패가망신하거나 하는 등의 민담류 이야기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설을 정의하는 요소인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가 그 이야기의 사실을 믿으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기념물이나 증거물이 있고,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 역사에서 전설화했다든가, 혹은 역사화의 가능성이 있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요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채집된 지역은 대만 전체에 고루 분포하지만 당시 행정의 중심지였던 북부보다는 남부지역이 많은데 이는 타이베이(台北)를 중심으로 한 식민을 고려한 면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한인(漢人)의 이민역사가 타이난(台南)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기에 상대적으로 역사적 전설도 많이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인물 중심으로 특히 청조 관원의 통치에 반항하거나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의 횡포에 저항하는 것이 많아 당시의 식민통치 계급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 약자에 대한 동정과 지도자적 인물을 중심으로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저항하여 승리를 거두는 내용을 주로 채집하고 정리한 것 역시 식민지 시기 대만민중의 열망을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금전이나 행운을 얻고자 하는 민중들의 심리와 착한 이가 꼭 복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운명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태도 등 역시 현실에 대한 순종과 인내를 요구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시각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또한 같은 모티프지만 내용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위 표의 3와 4는 인물명도 비슷하고 18개 광주리의 보물이라는 핵심적 요소는 동일하지만 인물의 의도와 과정에서 상당히 다른 전개를 보이고 있다. 분포지역이 매우 인접한 것으로 보아 구전과정에서 일어난 변형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두 가지 판본으로 전해진 듯으로 보인다.

기록의 방식을 보면, 비록 아주 먼 과거의 전설이나 고사가 아니기는 하나 일반적인 전설의 시간화소인 발단부→전개부→결과부→증시부의 구조가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는 핵심적인 사건을 첫 장면으로 시작하는 근대소설의 양식을 차용하고 있고 통치계층의 부당한 요구, 높은 세금, 소작세와 관개시설, 공동체를 해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 등 당시 사회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 형식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이 시기 민간문

학의 수집과 정리가 단순히 사라져 가는 민족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보다는 현실을 그리는 문학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모색한 민중문학의 한 형태로 보인다. 언어사용에 있어서도 비록 대만화문이 쓰이고는 있지만 백화문의 서술구조로 당시 근대소설의 형식과 동일하다.

『대만민간문학집(台灣民間文學集)』이 출간된 후 몇몇 문인의 평가가 나왔는데, 이 문학집의 판매에도 관여한 양규(楊逵)는 좌익문학의 입장에서 민간문학의 수집과 정리는 문예대중화의 실천을 위한 대만화문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며 이 문학집이 그 노력의 성과라고 했고 엽영종(葉榮鐘, 1900-1978)과 양운평(楊雲萍, 1906-2000)은 가요편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했지만 고사편에 대해서는 근대문학작가의 기교가 많이 들어가 오히려 원래 전설이 가지고 있던 소박한 느낌이 희박해졌음을 제기하여 민간문학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정리와 기록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데 이는 1930년대 근대문단에서 대만문학의 방향을 두고 나타난 입장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4. 일제시기 대만근대문단의 민간문학 수집과 정리의 의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1930년대 대만근대문단에서 진행된 민간문학 수집과 정리 열기에 대해 고찰했다. 하나는 당시의 주요 신문과 문학잡지의 민간문학과 관련된 의견을 찾아내어 시간 순으로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1936년 출간된 『대만민간문학집(台灣民間文學集)』에 실린 민간문학의 유형과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일제 식민치하 근대문단에서 민간문학을 수집하고 정리하게 된 계기와 논의된 내용이 대만근대문학의

전개과정에서 직면했던 여러 문제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민간문학의 수집과 정리 주장이 제기된 시기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동화주의를 표방하고 전면적인 일어교육이 진행된 지 십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민족어의 보존이 요구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후대 세대인 아동들의 언어사용에서 일어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이들이 또래집단과 가족 내에서 상용하던 대만화문은 근대 서면어(書面語)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근대지식인들이 공공영역을 통해 진행했던 민중계몽은 중국 백화문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언어상황에서 우선 민간문학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민간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만말을 보존하지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대만화문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민간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하겠다.

둘째, 1930년대는 제한적이었기는 하나 근대화가 상당히 진전됨에 따라 사회적 분업과 계층분화가 가속화되었고 생활방식과 가치관도 신문화의 유입으로 변화를 겪었다. 1920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민중에 대한 문화계몽과 식민초기부터 진행된 일본 주도의 근대교육은 그 목적은 달랐으나 대만문화의 근대화 개조라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문화의 유실을 초래했고 근대 식민교육체제가 정비된 1930년대에는 이 현상이 더욱 가시화되었다. 때문에 민간에서 배태되어 전해져 오던 민족 고유의 세계관과 가치관, 생활습속 등 전통문화 전반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겨났으며 특히 1900년 전후로 출생하여 근대적 문화계몽을 주도한 세대들이 전통문화의 보존과 후대 세대로의 계승을 자신들 세대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들은 전통문인의 소양과 근대지식을 모두 습득한 신구교체기의 지식인들로 전근대 사회가 남긴 봉건사고를 혁파하려는 입

장이었으나 그것이 식민치하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는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민간문학을 통한 민족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보존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타율적인 근대화와 동화정책이 가져올 민족문화 위기에 대한 저항담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셋째, 상술한 1930년대 대만의 상황과 근대지식인이 가졌던 문제의식의 기초에서 당시 세계적인 북고열과 특히 중국에서 제기된 민중문예인 가요의 수집과 연구의 영향으로 민간문학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되었다. 이전까지는 식민지 통치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대만의 구관(舊慣)조사가 진행되거나 일본인 학자들이 수집한 대만가요집이 발간되는 등 체계적인 대만연구가 식민당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에 비해 근대문단은 서구문명으로 대만사회를 개조하고 근대문학으로 민중을 계도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오사문학혁명운동의 성과와 추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오사시기 베이징대학을 위시로 민간가요에서 민족문화의 보존, 문학어로서의 구어의 정립은 물론 민중들의 진솔한 정감에서 장래 민족시를 발전시킬 동력을 얻고자하는 움직임은 처음부터 강력한 민중지향을 기저로 형성된 대만의 근대문단에 자극이 되었다. 실제로 가요의 채집과 기록에 있어 중국에서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거나 대만에서 전래되고 있는 많은 가요가 복건성 지방과 중첩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동일하게 서구 근대화의 급속한 변천을 겪고 있던 중국에서의 민간문학 열기는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넷째, 식민하 근대화의 진전은 급속한 사회계층의 변화와 더불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의 빈곤화를 불러왔다. 특히 주요산업인 제당업의 원료인 사탕수수과 미곡증산을 위해 강요된 쌀 재배를 둘러싸고 당국과 농민 사이의 모순은 갈수록 격화되어⁴³⁾ 1925년에는 급기야 대규모의

43) 이러한 현상을 米糖相戩이라 하는데 米作과 蔗作의 재배를 둘러싸고 농작지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다. 주요원인은 일본이 대만에서 필요한 양식을 조달하고자 米作을

농민저항운동인 얼린사건(二林事件)⁴⁴⁾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지식인들은 농민을 도울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27년 대만문화협회(台灣文化協會)의 분열은 강고한 식민통치 아래서 민중을 계몽대상으로 한 문화운동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민족과 계급모순이 중첩된 현실을 자각하고 민중을 주체로 한 보다 직접적인 해방운동의 필요성을 일깨운 시발점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근거를 제공한 사회주의이념과 좌익문예이론은 대만근대문단의 민중지향을 강화시켰고 그 실천으로 문예대중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중에게 문예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언어로 창작된 문학이 필요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문학의 수집을 통해 민간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찾아내고 문자화하는 작업이 우선되었다. 대만화문논쟁 이후 여러 문예지에서 대만화문란(台灣話文欄)을 마련하여 수집된 민간문학에서 지역마다 다른 발음과 음이 없거나 정해지지 않은 글자에 대한 문자화를 두고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음은 민간문학이 민중들의 문학어를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말해 준다. 나아가 이렇게 창작된 문학을 통해 다시 민중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 일어가 상용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민간문학 열기는 식민화에 대한 문화적 저항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앞서 보았듯이 1930년대 민간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배경에는 근대문단의 민중에 대한 시각이 계몽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전환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과정에서 초기 대만문화의 개선과 사회개혁을 추구하던 반봉건 내용의 문학방향은 민중들의 현실과 직접적인 영향관계

권유했고 제당회사들은 미작의 재배를 억제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44) 二林事件은 二林蔗農事件이라고도 하며 일제시기 대만의 농민운동이다. 1924년에서 25년 사이에 彰化의 二林에서 사탕수수 농민들이 林本源製糖株式會社の 사탕수수 수매가격이 너무 낮다고 하여 일어난 총동로 당시 4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향후 대만 농민조합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에 있는 차별적 식민지배구조와 대다수 농민의 빈곤을 직시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지에 주어졌다. 즉 근대문학의 내용과 창작방법에 있어 민중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정서와 사고를 담고 있는 민간문학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당시 근대매체와 문예지에서 어떤 기준으로 민간문학을 정리하고 기록할 것인지를 토론하면서 민간의 고유문화와 생활을 간직한 민간문학에서 양분을 섭취해 근대문학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민간문학의 가치에 대한 발견과 정리의 필요성에 대한 1930년대 근대문단의 인식은 당시 민간문학 수집의 집대성이라 불린 『대만민간문학집(台灣民間文學集)』의 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천 여수에 달하는 가요편과 23편의 민간고사로 이루어진 이 문학집은 앞서 본 대만화문의 통일과 문자화 요구에 맞추어 대만 각지에서 고루 채집한 풍부한 가요를 통해 정확한 발음을 기록하고 주를 병기하여 각지에서 사용되는 예를 제시했다.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민중의 고단한 삶과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가 담긴 것을 수록했고 특히 민간고사는 대다수 역사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민중들이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과 권력자의 횡포에 맞서는 내용이 많은데 이를 근대소설의 기법으로 정리, 기록하여 당시 검열로 인해 비판적 문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밖에 핍박받는 약자에 대한 동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식민지시기 근대문학과 호응하고 있다.

본문은 1930년대 대만근대문단의 민간문학 논의가 식민지하 근대화와 동화주의 일어교육에 대한 대응과 민족문화의 보존을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발명된 개념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간문학의 수집은 대만화문의 문자화에 기여하면서 그것이 담보하

고 있는 민중의 열망과 가치관 등 대만문학의 민중성 확보와 근대문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台灣民報社, 『台灣民報』(1923-1930); 『台灣新民報』(1930-1941)
北京大學歌謠研究會, 『歌謠』週刊(1922-1925)
南音雜誌社, 『南音』(1932.1-1932.9)
台灣藝術研究會, 『フォルモサ』(1933.7-1934.6)
台灣文藝協會, 『第一線』(1935.1)
台灣文藝聯盟, 『台灣文藝』(1934.11-1936.8)
台灣新文學社, 『台灣新文學』(1935.12-1937.6)
台灣文化協進會, 『台灣文化』(1946.9-1950.12)
李獻璋 정리, 『台灣民間文學集』, 台灣文藝協會, 1936
- 박지향, 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The Invention of Tradition)』, 휴머니스트, 2004
최말순, 『식민과 냉전하의 대만문학』, 글누림 출판사, 2019
최말순 편, 『타이완의 근대문학 1』, 소명출판, 2013
崔末順, 『海島與半島:日據臺韓文學比較』, 聯經出版社, 2013
施懿琳, 「民歌采集史上的一頁補白」:蕭永東在『三六九小報』的民歌仿作及其價值」, 『通俗文學與雅正文學』, 2002
胡萬川, 「反思與認同:1920-30年代中國與台灣民間文學運動的異同」, 『中國近代文化的解構與重建學術研討會論文集－中華文化與台灣文化:延續與斷裂』, 政治大學, 2005
王美惠, 「1930年代台灣新文學作家的民間文學理念與實踐:以『台灣民間文學集』爲考察中心」, 國立成功大學歷史研究所博士論文, 2008
崔末順, 「現代性與台灣文學的發展(1920-1949)」, 國立政治大學中文系博士論文, 2004
戴文鋒, 「日治晚期的民俗議題與台灣民俗學:以『民俗台灣』爲分析場域」, 國立中正大學歷史研究所博士論文, 1999.

논문투고일 : 2023. 4. 13. 심사완료일 : 2023. 6. 11. 게재확정일 : 2023. 6. 14.

Abstract

Collection, Organization, and the Significance of Folk Literature in Taiwanese Literary Circle in the 1930s

Choi, Mal-soon*

Collection, organization, and research on folk literature were actively developed in Taiwanese literary circles in the 1930s. Most of the intellectuals who led this movement were new intellectuals who pursued the development of Taiwanese culture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lonial situation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in the 1920s through Western modernity. They collected songs, stories, proverbs, and riddles created to entertain the people, classified the contents, organized the historical awareness and daily life of the people, and published 『Taiwan Folk Literature』 (1936). The purpose of the publication was to establish the tradition and ideology of the ethnic community. By referring to the colonial era and historical situation at the tim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collection and organization of folk literature and the theoretical basis and achievements of folk literature research.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d on the various conditions and problems faced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olonial Taiwanese modern literary circles, the background, cause, process, and result of the enthusiasm for collecting and organizing civilian literature in Taiwanese literary circles in the 1930s, and the collected folklore at that time. I aimed to introduce the scale and contents of literature and discuss the thoughts and perceptions of intellectuals who led the process. Furthermore, I explored what the interest in folk literature meant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modern Taiwanese literature under colonial rule.

key words Folk literature, Taiwanese literature, colonial Taiwan, 1930s literary circles in Taiwan, Taiwan Folk Literature(1936)

* Graduate Institute of Taiwanese Literature, National Chengchi University